

주제 해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원더키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추천 알고리즘¹⁾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튜브를 비롯한 넷플릭스, 티빙, 왓챠,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실행하면, 모든 이용자의 첫 화면이 각각 다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가 시청하는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시청했던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빼앗는 다양하고 강렬한 영상들은 마치 무엇이 올라올지 모르는 카지노의 슬롯머신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로 하여금 사이트에 오랫동안 머물게 만듭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뿐만 아니라 SNS, 쇼핑, 뉴스,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고객의 행동을 정교하게 분석한 후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게 우리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고도화된 과학 기술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을 철저히 연구하여, 당신에게 이렇고 저런 숨겨진 욕구가 있다고 이용자들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려면 '우리가 띄우는 이 광고를 보고 상품을 사라'라고 설득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들의 수익 모델이고 우리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파생되는 정신 질환 즉, 소외감이나 중독, 심리적 허탈감을 따져보면 그저 경제 원리로 치부하기엔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1)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와 방법 혹은 공식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

우리에게는 한정된 자원인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이 시간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 곧 시간을 빼앗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벧전 5:8). 평범한 일상에 충동, 중독, 자책 그리고 다시 중독의 악순환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경계를 늦추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의 다음세대가 죄의 유혹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하기 위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 훈련의 교관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바벨론 제국 한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임명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한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며, 종국에 있을 강대국들의 멸망을 계시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목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었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음세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원더 키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3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Choose GOD!, Look to GOD!, Serve GOD!'입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을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울 것입니다.

첫째, Choose GOD!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맛있는 왕의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부정한 음식이라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Choose GOD!

둘째, Look to GOD!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똑똑했기 때문에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험이 닥쳤습니다.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고위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높은 관직, 돈,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게도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Look to GOD!

셋째, Serve GOD!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라, 모셔라!”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온 세상의 주인 이 자기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화를 과시하려고 큰 잔치를 엽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은 할아버지 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성전 기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 신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 합니다. 겁에 질리는 벨사살은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서 서열 3위의 권력과 보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비가 다니엘을 왕의 앞에 세웁니다. 다니엘은 값진 보석과 높은 관직 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글자를 해석하여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 임을 왕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벨사살은 살해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에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Serve GOD!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영적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계 17:5, 18:2). 여기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의 주권에 반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거룩한 촛대를 가져와 태양 신의 우상 신전에 둔 것에서 보듯이 바벨론에는 여러 종교가 혼합된 거짓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을 진리와 섞어서 혼잡하게 만들고 그것을 강요하며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진리와 오류가 섞인 혼돈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은 어떤 모습입니까? 황금만능주의, 극한경쟁, 승자독식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자 신을 승자로 여겨 자만하거나, 패자로 여겨 절망하고 무너지는 극단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네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너의 인생이 끝난다.’는 위기감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오직 육신의 정 욕을 좇게 합니다.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 안에 갇히게 합니다. 나의 눈을 만족시키는 안목의 정욕에 붙잡히게 합니다. 그 결과 눈치 채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세계관에 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관들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 정욕의 포장지로 싸여 있기에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처음 페이스북에 ‘좋아요’ 버튼을 만든 개발자는 이 버튼으로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를 일구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좋아요’ 버튼은 인간을 줄 세우는 평가 지표가 된지 오래입니다. 실시간으 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우리 다음세대에게 심어졌습니다. 장점만 드러내고 자랑하느라 바빠서 정작 내면은 텅 빈 자아 말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은 철지난 미덕이 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인 생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우상화하고 심지어 신격화하려는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원더키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적 바벨론의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영적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유튜브와 같은 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빼앗긴 우리의 시간들,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남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보다는 우리의 정욕들을 위해 써버린 시간들을 우리 인생,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학교는 우리 다음세대들을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며 초토화 된 크리스천 다음세대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경학교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사와 사역자도 스스로 이런 생활로부터 돌아키고 다시 정신을 차려 일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욕을 절제하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적의 세대, 원더키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